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Healthy Korean Society : With Emphasis on Calvin's Theology

이 신 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는 말 | 199
2. 칼빈의 사회와 공정에 대한 이해 | 200
   2.1. 16세기 사회적 상황 | 200
   2.2. 이웃 사랑에 대한 칼빈의 이해 | 204
   2.3. 칼빈의 공정성(fairness) 이해 | 206
3. 공정한 제네바 구현을 위한 칼빈의 역할 | 209
   3.1.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 | 209
   3.2.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 212
4.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 219
   4.1. 예배에서 사회봉사까지 (교리교육, 엘지 맥키,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 219
   4.2. 집사제도의 재고를 통한 교회 제도의 공정성 확보 | 220
   4.3.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에 근거한 공정성에 대한 강조 | 221
   4.4. 사회봉사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과 공정성 | 223
   4.5.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교육의 필요성 | 224

요약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칼빈의 견해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한국 교회가 공정한 한국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찰함에 있어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John Calvin, 1509-1564)을 모델로 삼았다. 16세기 사회적 상황에서 칼빈의 공정성 (fairness)이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기초로 한 개념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율법을 지키고 상호간에 사랑의 직무를 행하는 것에 집중된다. 여기에서부터 곤경에 처한 자에 대한 배려가 도출되며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는 정신도 생겨난다. 공정한 제네바 사회를 위한 칼빈의 역할은 크게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로 나누어서 생각될 수 있다. 먼저 법률전문가로서 그는 <교회법령>을 작성하여 교회내에서 협력정신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제네바 시에서 제네바시민법 개정에 동참하였고

사치금지법을 위시한 다양한 법률제정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서 공정한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였다. 공정한 제네바 건설을 위한 칼빈의 실질적 역할은 그의 교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집사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제네바의 구빈원의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 더욱 공정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프랑스기금은 제네바에 정착한 프랑스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 제도로서 구호활동 뿐 아니라 모든 피난민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걸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제네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칼빈의 본보기로부터 한국교회가 공정한 한국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바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안했다: 사회봉사를 위한 예배와 교회 교육의 회복과 실천, 집사제도의 재고를 통한 교회 내의 공정성 확보,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에 나타난 공정성에 대한 강조, 사회봉사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를 통한 공정성의 확립, 사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

* 이신열 교수는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 of New York at Binghamton) 화학과(B.A.), 펜실바니아 비블리칼 신학대학원(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M.Div.)을 졸업한 후, 네덜란드 Apeldoorn 기독개혁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Doctrandus) 학위를 받고 동교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Healthy Korean Society : With Emphasis on Calvin's Theology

주요어

공정성,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존 칼빈, 사회봉사

에서 "Grace and Power in Pentecostal and Charismatic Theology"(오순절 및 은사주의 신학의 은혜와 능력개념 연구, 2002)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를 거쳐, 현재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의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Abstract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Healthy Korean Society : With Emphasis on Calvin's Theology

Prof. Dr. Samuel-Y. Le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ole of Korean Church to the realization of fair Korean society. It is the author's conviction that Calvin's role in development of fair society in Geneva during 16th century can function as a good model for accomplishing our purpose of achieving a fair Korean society and the role of Korean church for this purpose. In 16th century social setting, Calvin's understanding of fairness in Genevan society was largely based upon the concept of love for God and love for the neighbor. Fairness was sought on none other than the law of God showing great respect for divine love and its actual in terms of concern and care for the poor in the society. Calvin's practice for a fair society can be summarized in two categories of his ministry. First, Calvin pursued fairness as an expert in the field of law. He had written not only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for the Genevan church but also civil laws in the city including various laws. In *Ecclesiastical Ordinances* Calvin was able to show forth the concept of fairness by emphasizing corporate solidarity, collegiality, and equality among the pastors within the Genevan

Church. Also he had indirectly influenced the legislation of the sumptuary law which was an attempt for equality to be reinforced regardless of one's status. Second, Calvin pursued fairness in society as a church minister. His influence can be seen in the establishment of deacons for proper care of the hospitals and *Bourse française.* Hospitals in Geneva, even though not directly under the control of the church, had exercised the duty of taking care of the poor with fairness. Bourse française had provided fair opportunities to the French refugees in Geneva for them to realize their potential by preparing funds, educational facilities, etc. In light of Calvin's ministry in Geneva, five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Korean Church to possibly contribute for establishing a fair Korean society: recovery of worship and education for social service in the church, reconsideration of the current office of deacon in the church,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Christian ethics as a proper element for accomplishing fairness in the society, necessity for acquiring expertises in the field of social services in the church, necessity for education toward society.

Keywords | Korean society, Korean church, fairness, John Calvin, social service

1. 들어가는 말

교회 성장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숨가쁜 속도로 발전해왔던 한국교회는 새 천년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비쳐진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교회와 사회'라는 미해결의 문제를 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향해서 예언자적 소리를 발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오히려 부정부패한 교회라는 비난을 계속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점에서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공정한 한국사회 구현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공정(fairness)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은 정의(justice)와 동일한 개념인가? 공정(fairness)은 정의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롤스(John Rawls)는 후자는 사회의 일원이 어떤 특정한 행동에 참여할지 또는 하지 않을 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규율 체계에 적용되는 반면 전자는 사회의 일원이 서로 협동하거나 상충되는 규율 체계에 적용되며, 이에 참여할지 또는 하지 않을 지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는 규율체계에 적용된다고 양자의 차이를 밝힌다.[2] 그렇다면 공정은 사실상 정의를 포함하고 사회에 속한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구성되는 개념에 해당된다.[3] 공정에

2) 존 롤스,『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 이인탁 · 이민수 · 이한구 · 이종일 옮김 (서울: 서광사, 1988), 72.

3)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1972), 112.

대한 정의로부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파악된다. 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또한 정의를 실천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공정 사회 실천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여에 대한 이해추구는 한국교회가 처한 신학적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로교 전통에 속한 한국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John Calvin, 1509 -1564)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칼빈의 가르침에 근거한 개혁주의 정신에 근거해 발전해 왔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칼빈의 견해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언급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칼빈의 사회와 공정에 대한 이해, 공정한 제네바 구현을 위한 칼빈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한국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방안.

2. 칼빈의 사회와 공정에 대한 이해

2.1 16세기 사회적 상황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부의 불균등한 분배와 가난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4] 중세 교회가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4) Hans Scholl, "Die Kirche und die Armen in der reformierten Tradition," *Reformierte Kirchenzeitung* 124 (1983): 64-73.

일환으로 제시한 것은 자발적 구제행위에 해당하는 자선이었다.[5]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가 미덕(virtue)으로 권장되는 중세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와 수도원들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주교와 지역 교구의 사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구빈원(hospital)들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모금 활동이 자주 행해졌다. 이러한 자선행위의 배경에는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되었던 공로사상과 가난을 미덕(virtue)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하나님 중심적 이해보다는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의 길을 택하는 것이 곧 종교적 공로라고 여겼던 일부 탁발 수도사들의 인본주의적 견해가 자선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였다.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 전염병, 수많은 전쟁의 결과로 촉발된 고아와 만성 병자들, 그리고 근거지를 잃은 농노들로 인해 가난은 중세 후기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성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은 수많은 재정낭비와 빈민구제에 대한 효율성을 하락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세 말기의 중요한 변화로서 도시의 성장과 이에 근거한 상인세력의 성장과 부의 축적은 자선 행위가 더욱 많은 비성직자들(non-clergies)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뜻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중화(centralization), 평신도화 (laicization), 그리고 합리화(rationalization)로 요약될 수 있다.[6] 첫째, '집중화'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5) 엘시 N. 맥키,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류태선 · 정병준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90ff.

구제 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통폐합을 의미하였다. 제네바 (Geneva) 시의회는 1535년에 일반 구빈원 (the General Hospital)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이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존재해 있던 몇몇 구빈원들을 하나로 통폐합하고 세인트 클레어 수녀원 건물 (Convent of St. Claire)을 사용하게 된 경우이다. 비록 새롭게 설립된 구빈원이 훨씬 대형화되고 복잡해져서 고도의 행정력이 요구된 것이 사실이었지만 인력 감축, 건물과 부대시설 운영비용 차원을 고려해 볼 때 더욱 효율적인 체계로 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7] 둘째, '평신도화'란 구제기관의 행정이 교회나 성직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세속 정부에 의해 감독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에 구제기관의 활동에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고 상인들을 위시한 평신도들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했던 세속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비록 구빈원의 행정관들이 교회의 평신도들이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시의회, 즉 세속정부의 책임이었다. 그 결과 성직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구빈원을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교회에 출석하는 시의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해야 했다. 시의회에 의해 관리되지 않았던 구빈원들이 존재했지만, 1560년 이후에는 프랑스의 모든 구빈원들이 평신도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한 조례들이 통과되었다.[9] 셋째, '합리화'란 구빈원의 구제활동의 세부화, 재정의 관리와 감사, 건물 관리, 행정관들의 훈련, 그리고 구제활동의 조력자로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의 제정 등을 의미했다.

---

6) Ibid., 93-95.

7)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1976): 50-69; William C.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A: Pickwick Publications, 1983), 142, 146.

8) 프레드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150.

9) Gaston Zeller, *Les institutions de la France an XVI sie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8), 381-83.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151에서 재인용.

이에 근거해 자금을 관리하고 구빈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는 위원회와 재정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procurator)과 실질적으로 빈민과 병자들을 돌보며 구호물품을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원장(hospitaller)을 두게 되었다.[10]

이러한 구제 기관들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또 다른 변화는 가난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구걸행위에 대한 금지를 들 수 있다. 마틴 루터 (Martin Luther)는 구걸행위의 금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중 하나는 아마도 기독교 왕국 전체에서 모든 구걸행위를 철폐하는 것일 것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걸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11]

이는 루터가 재산이 개인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사랑의 법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다. "만일 크리스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심에 있어서 그는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고 또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신다."[12] 그가 독일의 귀족들에게 요구한 구걸 철폐는 전적으로

---

10) 제네바의 일반 구빈원의 행정관과 원장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21-28.

11) Martin Luther, "An Appeal to the Ruling Class of the German Nation as to the Amelioration of the State of Christianity, " i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New York: Doubleday, 1961), 460.

사적 재산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개인의 탐욕과 소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삼는 주장이다. 이는 개인의 기부 행위를 자신의 구원을 위한 공로 또는 수단으로 삼는 중세적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13]

2.2 이웃 사랑에 대한 칼빈의 이해

인간 구원과 관련된 칼빈의 신학적 이해는 칭의와 성화를 제공하는 이중적 은혜 (duplex gratia)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14] 아담의 범죄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 결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서 살게 되었다. 창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셨고 이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나 공로 없이 이 은혜가 임한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을 통해 성령께서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고 죄의 세력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 이 성화의 삶은 곧 믿음으로 사는 삶이며 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집약되어 그 모습을 드러낸다.[15]

---

12) *WA* 51, 384.
13) Scholl, "Die Kirche und die Armen in der reformierten Tradition," 64.
14) 『기독교강요』, 3.11.6.
15) *CO* 33, 30-31 (욥 1:1 설교); *CO* 50, 250-51 (갈 5:14 주석); *CO* 45, 119 (눅 3:10 주석); *CO* 45, 688 (마 25:35 주석).

칼빈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율법의 관점에서 묘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제 3용법(usus tertius legis)인데 이 용법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 책을 읽는 자들에게 이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16] 중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이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제 3 용법은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일종의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힌다. 칼빈은 이를 구체적으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요약하자면, 이웃에게 손실을 끼치는 해로운 탐욕이 생겨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동시에 정반대의 계명도 포함되어 있다. 곧,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시도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여기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사랑이라는 목적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그 생각들이 부패해지고 왜곡되어 그 반대의 방향으로 정신을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17]

이웃을 향한 사랑, 즉 사회를 위한 봉사는 하나님 사랑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율적인 것도 아니며 이에 첨가되어야 할 부가물도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며[18]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에 해당된다.[19] 따라서 계명의 요약은 참된 믿음과 순전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16) 『기독교강요』, 2.7.12.
17) 『기독교강요』, 2.8.49.
18) 『기독교강요』, 2.8.51.
19) 『기독교강요』, 2.8.53; 로날드 S. 웰레스,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20] 여기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 즉 이웃을 향한 사랑은 칼빈이 말하는 사회를 향한 봉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2.3 칼빈의 공정성(fairness) 이해

앞서 살펴 본 칼빈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되는 자발적 사랑이며 이 자발성에 근거해서 사회봉사를 위한 토대로 작용한다.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이웃 사랑을 또한 '사랑의 직무 (office of love)'로 묘사하기도 한다.[21] 이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제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22] 칼빈은 계속해서 율법의 핵심이 공의와 공정과 의로움과 믿음에 놓여 있다고 밝힌다.[23] 즉 율법을 지키고 사랑의 직무를 행하는 것이 공정한 삶을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아울러 밝힌다.[24]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150-51; Elsie Anne McKee,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Calvin's Teaching on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John Calvin Rediscovered: The Impact of His Social and Economic Thought*, eds., Edward Dommen & James D. Brat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7), 8.

20) *CO* 52, 253 (딤전 1:5 주석): "Haec legis summa est, ut Deum colamus sincera fide, et pura conscientia: deinde ut nos mutuo amemus."

21) 『기독교강요』, 2.8.11. Cf. *CO* 26, 300 (신 5:13-15 설교).

22) *CO* 26, 309 (신 5:16 설교).

23) Ibid.

24) Ibid.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는 먼저 제 5 계명 이해를 통해서 드러난다. 칼빈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영적 규례로만 간주하지 않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호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라고 정의한다.[25] 안식일에 종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곧 그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며 제 5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12에 언급된 예수님이 가르치신 소위 '황금률 (the Golden Rule)'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궨터 하아스 (Guenther Haas)는 이황금률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빛나는 공정의 법칙(the rule of fairness)이라고 정의한다.[26] 칼빈은 공정함이 이웃에 대한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사랑을 지배하고 이끈다고 보았다. 공정함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 상황 속에서 표현되도록 만든다.[27] 제 5 계명에 나타난 공정함은 종들을 노동의 극심함으로부터 보호하여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랑을 통하여 표현된다. 즉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 형편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이타적 사랑으로 공정함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곤궁에 처해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자신이 곤궁에 처했던 처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배려하는 모습이 공정함의 모습인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의식을 지닐 때 가능한 것이다.[28]

칼빈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해설하면서 공정함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 자신의 소유를 그분께서 처음

25) *CO* 26, 300 (신 5:13-15 설교).
26) Guenther H. Haas, *The Concept of Equity in Calvin's Ethics* (Carlisle: Paternoster, 1997), 49.
27) Ibid., 51.
28) *CO* 26, 304-305 (신 5:13-15 설교).

에 분배해 주신 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며[29] 만물이 더렵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정하신 소유의 질서가 유지되는 공정함을 명령하신 것이다.[30] 공정함이라는 자신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을 금지하신 것이며 이 금지를 통해서 형평과 공정함이 계속 유지된다.[31] 따라서 공정의 원리를 벗어나고 이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 즉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은 수단과 간계를 동원해서 갈취하는 행위와[32]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욕심도 모두 도둑질에 해당하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초래하는 행위이다.[33] 또한 도둑질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는 율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랑의 결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사랑의 결여로서의 도둑질은 공정함을 상실한 행위일 뿐 아니라[34]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둑질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간 사회의 결속의 띠를 파괴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또한 도둑질하는 자는 인간으로 여겨질 자격조차 상실해 버리고 만다.[35] 즉 당연히 이웃에게 행해야 할 직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로 간주되는 것은 "자기의 부름에 수반되는 책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36]

---

29) 『기독교강요』, 2.8.45.
30) *CO* 26, 359 (신 5:19 설교).
31) *CO* 26, 358 (신 5:19 설교). 칼빈의 형평성에 관한 글로는 필자의 졸고를 참고할 것. "칼빈의 질서와 형평성 이해,"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9), 63-98.
32) 『기독교강요』, 2.8.45.
33) *CO* 26, 347-48 (신 5:19 설교).
34) *CO* 26, 351 (신 5:19 설교).
35) Ibid.
36) 『기독교강요』, 2.8.45.

3. 공정한 제네바 구현을 위한 칼빈의 역할

3.1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

칼빈은 제네바 시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의회의 법 제정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먼저 교회법령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에 나타난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그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37] 교회법령은 제네바 교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칼빈이 작성하여 시 소의회 (the Small Council)에 제출한 문서로서 간결하고 법적인 언어로 작성된 문서이다. 또한 이는 1537년에 개략적으로 작성되었던 '법령(*Ordinances*)'[38]의 개정 증보판이기도 하였다. 비록 성찬의 시행과 관련하여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지만 이 문서는 교회에 관한 칼빈의 기본적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교회의 질서 (order)는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4가지 직분 (목사, 장로, 교사, 집사)에 의해 구현되는 통치 (government)로 이해되었다.[39] 아마도 이 문서에서 공정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목사가 지녀야 할 사역의 자율성과 권위에 관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로 인해 말씀에 대한 경멸감이 초래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제력(self-discipline)을 갖추어야 한다.[40] 이를 위해서 목사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에 '목사회합'이라는 모임을 통해 성경을

37) *CO* 10, 15-30; Harro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2), 90-102; 빌렘 판 엇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129-39.
38) *CO* 10, 5-14.
39) *CO* 10, 17.
40) *CO* 10, 19;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91.

연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는 '품행감독'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순수한 교리를 추구하고 높은 도덕성 유지를 위한 열정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41] 또한 교회법령은 목사들이 상호간에 돌아보고 연합하는 단체적 연대감(corporate solidarity)을 지녀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들과 더불어 사역할 수 있는 협력정신(collegiality)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42] '단체적 연대감'은 제네바 주변의 마을들에 시찰들이 형성됨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넓은 지역이 복음적 성격이 보존되었다.[43] 여기에 언급된 '협력정신'은 원래 로마 가톨릭 주교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권한의 평등(equality)을 의미하였다. 이는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지닌 목사들이 서로를 대할 때 지녀야 할 존경심과 예절, 즉 공정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공정성은 교회의 질서와 품위 유지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또한 칼빈은 교회법과 관련해서 법의 기본 목적에 해당하는 공정성은 질서를 통해 보장되며 이 질서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건덕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설명한다.

> 그것은 그 법들의 목적이 언제나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이거나 아니면 두 가지 모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곧,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에서 모든 일을 질서와 위엄을 지니고 행한다는 것과 또한 인간 사회 자체도 인간성과 예의의 특정한 끈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공공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빠지는 그런 미신이 제거된다. ... 질서의 목적은 부분적으로, 거룩한 것들을 향한 존경심을 장려시키는 의식들이 시행

41) 판 엇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133.
42) *CO* 10, 18; Höpfl,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93.
43) 판 엇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138.

> 될 때에 그런 보조수단들을 통해서 경건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모든 존귀한 행위에서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질서와 진지함이 거기서 밝히 드러나도록 하는데 있다. 전자의 목적은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는 선한 다스림의 원리와 법을 깨닫도록 하고, 또한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올바른 권징에 순응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후자의 목적은 교회를 선한 질서 가운데 구성하고 세움으로써 교회에 평화와 안녕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44]

교회법령은 1541년 11월 20일에 시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수용된 후 그 다음 날 칼빈은 제네바 시민법을 수정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다.[45] 이 법은 공정성을 권한들 사이의 상호 균형과 민주적 통치 형태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빌렘 판 엇 스페이커르(Willem van't Spijker)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 갱신된 법률서에는 다양한 의회의 권한들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 확정되었고, 통치기구 자체의 민주적 형태가 시민들과 연관되어 규정되었다. ... 폭도들의 혁명적 활동은 금지되었다."[46]

법률전문가로서의 칼빈을 실력을 인정한 제네바 시는 여러 다양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에게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게 되었다. 그가 작성한 법들 가운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관심을 잘 드러내는 법으로 사치금지법을 들 수 있다.[47] 종교법원(the Consistory)의 대표자이며 목사이었던 니콜라스

---

44) 『기독교강요』, 4.10.28.
45) *CO* 10, 30.
46) 판 엇 스페이커르, 『칼빈의 생애와 신학』, 139.
47)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163-72. 이 글에서 그래함은 왜 이 법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또한 그 자체로서 불필요한가를 비판적인 태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데 갈라르 (Nicholas des Gallars)가 시의회에 이 법에 대한 의뢰서를 제출하였을 때 칼빈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그 제안을 옹호하였으며 시의회는 이를 수용하여 이 법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은 무절제와 탐욕으로 가득 찬 삶에 제재를 가하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빈부 사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 법은 제네바에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차별없이 똑같이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이 법에 반영된 칼빈의 공정성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윌리엄 몽터 (William Monter)는 이 법이 공정성을 적절하게 수용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분명히 유효한 증거에서 나온 요점은 제네바의 칭찬할 만한 공평성을 가지고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의의 손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 같이 미쳤다는 것이다."[48]

3.2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

칼빈이 제네바 교회의 지도자로서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주로 가난의 퇴치와 복지의 구체적 실천으로 그 구체적 모습을 나타낸다. 제네바의 구빈원 (the General Hospital)과 부어스 프랑쉐즈 (Bourse Francaise)라는 프랑스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기금은 칼빈이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해 관리 감독하였던 기관들은 아니지만 여기에도 그가 이해하고 실천에 옮겼던 공정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a) 구빈원

제네바의 구빈원의 활동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48) William E. Monter, *Studies in Genevan Government, 1536-1605* (Geneva: Droz, 1964), 68.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166에서 재인용.

평등의 원칙을 따라 구호품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는 구호활동의 결과로 구호대상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여 그들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호활동은 아니었다. 공정성의 기준에서 살펴본다면 구빈원의 구호활동은 가난한 자를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가난의 정도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 공정성이란 전적으로 구호대상자의 개인적 자질과 상관없이 가난의 정도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평등성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빈원을 통한 구호활동은 칼빈의 자선에 대한 이해와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교회법령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직분으로 정의하였다. 집사의 직분은 이러한 구제활동을 담당하는 것인데 칼빈은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사도행전 6:1-6에서 찾았다.[49] 집사의 역할은 타락한 상태에 빠진 인간들이 상실해 버린 상호간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이는 물질적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상호간의 교제는 성령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인데 인간의 죄악이 이러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집사들의 구호활동을 통해서 상실된 상호간의 교제가 영적 영역과 물질적 영역 모두에서 회복된다. 이런 차원에서 칼빈은 집사의 직분을 거룩한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하며[50] 교회의 전체 사역의 일부로, 말씀 사역의 직분보다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다.[51]

---

49) Elsie A.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the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153ff.

50) *CO* 53, 290 (딤전 3:6-7 설교).

51) *CO* 49, 120 (행 6:2 주석). 올슨은 집사와 사역자의 관계를 '분리된 동등 (separate equals)'으로 묘사한다.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Selingsgrove, PA: Susquehanna Univ. Press, 1989), 30.

여기에서 칼빈은 구빈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사의 직분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는 『기독교강요』에도 언급된 구분이기도 하다.[52] 구제의 업무를 기획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집사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직접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집사 (이는 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한 과부들의 업무에 해당됨)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구분은 교회법령을 살펴볼 때 구빈원에서 전자는 '행정관'(procurator), 후자는 '원장' (hospitaller)으로 이해되었다.[53] 구빈원의 행정관들은 실제로 상인들(merchants)로서 제네바를 시 의회의 일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 행정이 나중에 시 정부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원장의 지도하에 다양한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사, 구빈원에 수용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맡은 교사, 구빈원의 모든 업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서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54] 원장의 임무는 1553년에 제정된 '구빈원법령(*Ordinances for the Hospital*)에 분명하게 나타난다.[55] 이 법령에는 '교회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던 원장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장과 행정관의 관계를 아울러 묘사한다. 특이한 것은 구빈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함에 있어서 원장이 자신의 직책에서 비롯된 권한을 개인적으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빈원에 대한 기부금과 구빈원의 물품의 구입과 판매에 있어서 원장의 역할을 제거하고 사적 업무를 위해서 구빈원의 물품이나 직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를 통해서 구빈원 운영 초기에 발생했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2) 『기독교강요』, 4.3.9.
53) *CO* 10, 23-24;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30.
54)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25.
55) Ibid., 142-43.

구빈원은 사실상 시의회의 일원이었던 행정관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므로 평신도들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의 기관이 아니라 정부 기관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이 품었던 평신도들에 의해 운영되는 구빈원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56] 그러나 구빈원에 대한 칼빈의 역할을 살펴볼 때 구빈원이 전적으로 시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기관으로만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록 칼빈을 포함한 목사들의 역할이 직접적이거나 일상화되거나 관례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구빈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특히 원장의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가 개인적으로 관여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 목사 칼빈은 성령 구빈원의 원장인 쥐스탱(Justin)이 도둑이며, 외국인에게서 돈을 갈취하려고 노력했고, 더군다나 가난한 병자에게 배급된 빵을 팔아먹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그들의 수당을 가로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을 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 보고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쥐스탱은 징계에 회부되어 면직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되었다 (쥐스탱은 그날 면직되었다.)[57]

이 자료에서 그의 이러한 관여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구빈원이 교회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관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칼빈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

56) William Monter, *Calvin's Geneva*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220.

57) *CO* 21, 343 (*Annales Calviniani*, 1544년 8월 29일).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151-52에서 재인용.

또한 칼빈과 제네바의 목사들은 1548년에 행정관들의 교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이 교체는 거의 이들의 주장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58] 1550년에는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전적으로 구빈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실 또한 교회가 구빈원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시사한다.[59] 따라서 구빈원은 비록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이는 교회와의 동맹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칼빈은 국가의 운영권을 고려하여 구빈원의 활동을 교회의 사역자인 집사들에게 맡겼는데 이는 집사직이 기관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뜻한다. 프레드 그래함 (Fred Graham)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교회는 비공식적인 감독인 칼빈과 더불어 교인들의 영혼 뿐 아니라 육체에도 지극히 관심을 기울였다. 제네바에서 집사직과 그들의 주요 활동 영역인 구빈원들보다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없다."[60]

b) 프랑스 기금(Bourse Francaise)

1540년대 후반 이후로 많은 피난민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이주하기에 이른다.[61] 이들 대부분은 프랑스 태생이었으므로 이들의 정착을 돕는 일에 칼빈과 제네바교회가 기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 기금은 1550년 9월 30일에 이미 마련된 구호기금을 체계화하고 세 명의 지도자를 임명하여 구체적 활동을 시작했다.[62]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1545년에 사망한

58)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65.
59)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49.
60) 그래함,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154.
61) 제네바 시로 이주한 피난민들의 공동체와 이들의 이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시민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로는 다음을 참고할 것. Monter, *Calvin's Geneva*, 165-90;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205-20; William 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4), 121-43.

뷔장통 (David Busanton)의 유언에 근거한 기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금의 지도자는 집사들로서 후원을 위한 기금의 모금과 기금 수여 대상자의 선정, 기금과 관련된 모든 회계 업무 등을 총괄하였으며 또한 혜택을 입은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일을 맡았다.[63] 비록 칼빈이 프랑스 기금을 직접 설립했다는 적극적 증거는 없지만 그가 뷔장통과 친분이 있었으며 그의 임종시에 함께 했음을 삐에르 비레(Pierre Viret)에게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그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편지를 비레에게 보내기도 했다.[64] 이 기금과 칼빈의 관련은 실제로 초기에 이 기금을 관리할 집사의 선출이 그의 자택에서 열렸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는 또한 그의 친구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이유에서 올슨 (Jeannine E. Olson)은 칼빈이 사실상 프랑스 기금을 통해서 구호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65]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구호 단체인 프랑스 기금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후원했는데 이는 구빈원이 재정적으로 정부에 의존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66]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형평성이 고취된 것으로 보인다. 집사들의 임무 가운데 형평성 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문제는 기금의 수여 대상자의 선정이었다.[67]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이 혜택을 누릴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서 '자격'이란 구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닌 능력을

62)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32ff.
63) Ibid., 72. 올슨은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는 업무를 주로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64) Ibid., 33. *CO* 12, 98.
65) 제나인 E.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편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9), 163, 173.
66)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215. 구빈원의 주된 구호활동이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프랑스 기금의 주된 활동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67)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127-47.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즉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여 자립할 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피난민들을 돕는 것이 이 기금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따라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부랑자나 방랑자들에게는 수여되지 아니하였다. 이 기금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으로 헌신된 피난민들을 위한 종교 피난민 기금이었다고 볼 수 있다.[68] 따라서 이는 앞서 언급된 구빈원의 활동처럼 민주주의적 원칙을 따라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제공하려는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 구호활동은 아니었다. 자격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수여된 기금의 성격은 교육적 차원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즉 자격을 갖춘 피난민들에게 도서, 훈련 기회, 그리고 학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69] 이 기금은 피난민으로서 더 이상 사역지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4명의 목사들과 1명의 박사에게도 주어졌으며 더 나아가서 프랑스에서 가톨릭의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들에게 물품들(성경, 시편찬송가, 요리문답서 등)을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선교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다.[70]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 기금의 원칙은 결국 많은 수혜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된 후에 이들 스스로가 기부자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자신들이 이 기금의 도움을 받아 자립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이 기금을 위해 기부한 사례는 제네바 사회가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공정한 사회, 건전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71]

---

68) Ibid., 139-43.
69) Ibid., 134.
70) Ibid., 135, 168.
71) 올슨,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70. 올슨은 이러한 사례로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의 선조인 디디에 루소(Didie Rousseau)를

4.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적 방안

이제 칼빈의 제네바의 경우를 모델로 삼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교회의 실천 방안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4.1 예배에서 사회봉사까지 (교리교육, 엘지 맥키,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한국 교회의 공헌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는 올바른 예배이해에서 비롯된다. 건전한 예배에 교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칼빈은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말씀, 기도, 성찬의 시행, 그리고 구제를 위한 헌금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힌다.[72] 예배는 사회를 위한 봉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구체적 사랑의 실천을 포괄한다는 성경적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마 22:37-39; 막 12:30-31; 눅 10:27).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함을 뜻한다. 우리의 사회봉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경건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는 구제가 예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선 행위가 아니라 예배와 적극적으로 관련된 요소로서, 또는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언급한다. 디디에는 1551년 4월 6일에 프랑스 기금에서 후원금을 받았으며 1570년 4월에 그의 유언장에 이 기금을 위한 기부금을 남겼다.

72) 『기독교강요』, 4.17.44. 칼빈은 교제가 구제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CO* 48, 57(행 2:42 주석): "Ego igitur ad mutuam coniunctionem, eleemosynas, aliaque fraternae coniunctionis officia potius refero."

따라서 한국 교회는 예배와 봉사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한국 교회에 예배와 더불어 성미(聖米)를 바치는 전통이 있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는 예배와 이웃 사랑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효과를 발휘하였음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구제를 생활 속에 확립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학적 인식이 결여되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사회봉사가 성경적 모습과는 거리가 먼 자기 존재에 대한 과시로 흐르거나 오히려 이를 망각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4.2 집사제도의 재고를 통한 교회 제도의 공정성 확보

개혁교회는 칼빈의 영향 아래 4가지 직분을 인정하고 이를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또는 틀로 생각해 왔다. 한국 교회는 집사직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직분 (목사, 장로, 교사)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개혁교회 전통의 틀을 유지해왔다. 교회 평신도의 대부분이 '집사'로 임명되는 현재의 한국교회 구조는 사실상 개혁교회 전통을 벗어난 것이며 이는 교회직분 이해와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제도적 틀에 있어서 건전한 개혁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국제적으로 집사를 양산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사직분을 통하여 교회의 사회봉사가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란 힘들다. 집사직분이 더 높은 직분으로 건너뛰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직분이라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탈피하여야 한다. 이는 로마 가톨릭의 위계질서적 직분 이해에 훨씬 더 근접한 사고이다. 한국교회에는 칼빈의 주장을 따라 집사의 직분이 말씀의 사역자와 더불어 거룩한 직분이라는 인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집사는 일반 평신도들보다 복음의 교리에 더욱 많은 교육을 받고 자신이 거룩한 직분에 임한다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73] 집사의 직분은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너져 내린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직분 자체의 신성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교회내의 집사들의 숫자를 줄이고 사회봉사를 자발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지하게 집사들로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이는 직분과 관련된 교회 내의 정당한 질서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교회가 행하는 일들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4.3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에 근거한 공정성에 대한 강조

칼빈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에 나타난 가르침에 근거하여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종교개혁자이었다.[74] 그가 신명기 설교를 엄청난

73) *CO* 53, 299 (딤전 3:8-10 설교).

74) 『기독교강요』, 2.2.24. 칼빈은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강령들의 보편성을 율법의 제2용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강령들(출 20:12 이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소 이해를 하는 편이다. 이 강령들은 그들이 속한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급된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문제'란 율법에 내재된 보편성이 강제로 적용되는 차원에 대한 설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C. Gregg Singer, "Calvin and the Social Order: Calvin as a Social and Economic Statesman," i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231: "칼빈은 모든 건전한 사회적 삶의 기초는 십계명

분량의 시간을 할애하여 행한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 지닌 보편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75] 한국교회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를 기독교 윤리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확신에서 찾아야한다. 사회봉사를 포함한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은 사회를 향한 교회의 행위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교회의 행위들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 행위로 비쳐진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한국교회가 교회성장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묵인되었던 행위들이지만 이는 사실상 교회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행위들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의 모든 행위들의 기초로 작용하는 보편적 윤리의식 없이, 즉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 없이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정정당당한 그룹이 아니라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편성이 결여된 기독교 윤리는 교회만을 위한 윤리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윤리이며 이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교회로 스스로의 모습을 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약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목소리를 발할 권리를 상실해 버리게 될 것이다. 교회 내적인 행위이든 세상을 향한 행위이든 간에 교회의 모든 행위는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이며, 마지막 여섯 계명들은 모든 사회적이며 정치적 행동의 기준이라고 믿었다."

75) 그의 신명기 설교는 무려 200편에 이른다. 1555년 3월 20일에 첫 설교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556년 7월 15일에 200번째 설교를 마무리하였다. 그의 작품전집 중에서 이 설교는 무려 5권에 걸쳐 수록되었다 (*CO* 25-29). 200편의 설교 제목들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Albrecht Thiel, *In der Schule Gottes* (Neukirchen: Neukirchner, 1999), 55-64. 칼빈은 특히 기독교 윤리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제 6 계명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Thiel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위의 글, 128-130을 참고할 것.

교회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모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4 사회봉사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과 공정성

이네스 (William Innes)는 제네바의 사회복지에 관한 권위있는 연구서에서 구빈원을 16세기 제네바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corporations)으로 묘사한다.[76] 여기에서 이네스가 말하는 '기업'이란 물론 자본주의적 차원에서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삼는 현대적 의미의 기업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가장 유사한 개념은 아마도 공정무역 개념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77] 구빈원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 기관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네스의 의도는 기업의 원래 목적과 관계된 고찰이 아니라 구빈원의 행정관들과 원장들이 지녔던 전문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구빈원의 행정관들은 상인들이거나 사업가들이었는데 이들의 경험이 구빈원을 경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제공했던 것이다. 행정관들은 그 당시 재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한국 교회는 제네바의 구빈원의 이런 전문경영인을 고용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임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학문과 고도의 전문적 지식, 그리고 최상의 목회적 경험을 갖춘 목회자를 원하는 것처럼, 사회봉사에 있어서도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복지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 머무르

76)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41.

77) 박경수, "칼뱅의 경제사상과 한국교회의 과제,"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학술대회 종교개혁기념 학술대회』자료집, 고려신학대학원 주최 (2009년 10월 27일), 39-40.

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문성 확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지녀야 한다.[78] 또한 이러한 전문성은 항상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교회가 담당해야 할 몫임에 대한 인식도 아울러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성이 보장될 때 사실상 가장 효율적인 사회봉사뿐만 아니라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방식의 사회봉사가 보장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한 사회 구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5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 교육의 필요성

칼빈은 교회가 세상이 제공하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다.[79]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일반 사회에 세속적인 차원에서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교육을 통해서 더욱 공정한 사회가 도래할 것을 믿는 이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현실을 무시하고 지상 사회의 복지에 무관심하였던 재세례파를 비롯한 급진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을 경계하였다.[80] 이는 칼빈이 꿈꾸던 사회가 공명정대한 사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환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교육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신학을 위시한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이끌었다.

---

78) Innes,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141.
79) 『기독교강요』, 2.2.16.
80) 로날드 S. 월레스,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146.

한국 교회가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교회가 사회를 위한 교육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보편성을 가르치고 그분의 공의를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는 악하고도 해로운 불법적인 것을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기꺼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회의 교육을 안타깝게도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국한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물론 교회의 평신도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회는 이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올바르게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열이 지나치게 교회 성장을 위한 차원에만 국한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된다.[81] 이런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더욱 기독교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국 교회가 많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여 이 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세상을 향해 가르치는 일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한 한국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가지고 상대주의와 포스트모던주의에 짓눌려 정의에 대한 열정을 상실해가는 우리 사회가 공정성을 회복하도록 기독교적 윤리에 바탕을 둔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82]

---

81)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984년에 초판 발행이후 무려 65회나 재판되었던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제자 훈련을 통해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임을 깨닫도록 교육하고 훈련하여 교회 체질을 개선하여 성장하는 교회로의 이미지 전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평신도 교육이 교회성장의 핵심과제임을 잘 지적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바깥을 향한 교육,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한 성경적 주제에 관심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82)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하바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들의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에 상당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상실해 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그래함, 프레드,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맥키, 엘시 N., 『개혁교회 전통과 디아코니아』, 류태선·정병준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롤스, 존.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이인탁·이민수·이한구·이종일 옮김, 서울: 서광사, 1988.

박경수, "칼뱅의 경제사상과 한국교회의 과제," 『칼빈 출생 50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고려신학대학원 주최 (2009년 10월 27일), 19-4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올슨, 제나인 E.,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대한 연구,"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편,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9, 159-76.

윌레스, 로날드 S., 『칼빈의 사회개혁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_____ .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이신열, "칼빈의 질서와 형평성 이해,"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개혁주의학술원편,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9, 63-98.

판 엇 스페이커르, 빌렘, 『칼빈의 생애와 신학』, 박태현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Calvinus, I.,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s. Baum, G., Cunitz, E. & E. Reuss, Brunsvigae: C. A.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CO*로 약칭함).

Haas, Guenther, H., *The Concept of Equity in Calvin's Ethics*, Carlisle: Paternoster,

1997.

Höpfl, Harro, *The Christian Polity of John Calvin*,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1982

Innes, William, C.,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Allison Park, PA: Pickwick, 1984.

Kingdon, Robert M.,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76 (1976): 50-69.

Luther, Marti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 New York: Doubleday, 1961.

McKee, Elsie Ann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the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_____ .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Calvin's Teaching on Social and Economic Issues," *John Calvin Rediscovered: The Impact of His Social and Economic Thought*, eds. Edward Dommen & James D. Bratt,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2007, 3-24.

Monter, William, *Calvin's Geneva*,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7.

Naphy, William G.,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1994.

Olson, Jeannine E.,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caise*, Selingsgrove: Susquehanna Univ. Press, 1989.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Oxford: Clarendon, 1972.

Scholl, Hans, "Die Kirche und die Armen in der reformierten Tradition," *Reformierte Kirchenzeitung* 124 (1983): 64-73.

Singer, C. Gregg, "Calvin and the Social Order: Calvin as a Social and Economic Statesman,"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ed. Jacob T. Hoog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9, 227-41.

Thiel, Albrecht, *In der Schule Gottes: Die Ethik Calvins im Spiegel seiner Predigten über das Deuternomium,* Neukirchen: Neukirchner, 1999.